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나는 이불 속에서 동생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으악!”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진짜 비명 소리였어요. 이어서 우당탕, 와장창!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살금살금 일 층으로 내려가 본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고, 아빠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니까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 일을 어찌지? 쥐를 잡으려다가 네 아빠를 잡았나 보다.”

바로 그 순간, 아빠가 살짝 눈을 뜨셨어요.

“사실은 소파 뒤에 숨어 있던 쥐와 눈이 마주친 순간 나도 모르게 기절했단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잠이 덜 깬 눈으로 방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집 안에 무슨 일이 있냐?”

“할아버지, 쥐가 나왔대요.”

“에구머니나!”

할아버지께서는 깜짝 놀라며 얼른 소파 위로 올라가셨어요.

“어이쿠, 나는 세상에서 쥐가 가장 싫다.”

그러자 아빠도 말씀하셨어요.

“저도요.”

엄마는 쥐를 잡기 전에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다고 하셨어요.

“오늘 밤에 당장 잡아야 한다고……!”

하지만 내가 먼저 하품을 하였고, 그다음에는 내 동생 탄지가, 그리고 다음에는 할아버지께서 늘어지게 하품을 하셨어요.

조은수, <숨은 쥐를 잡아라> 중에서

1 이 글의 시간적 배경은 언제인가요? ()

① 아침

② 한낮

③ 오후

④ 한밤중

4 이 글의 중심 글감은 무엇인지 쓰세요.

()

5 이 글에서 중심 문장은 무엇인가요? ()

- ① 씨름은 먼 옛날부터 우리 민족이 해 온 놀이예요.
- ② 씨름에서 이기려면 상대를 먼저 넘어뜨리면 되는 거죠.
- ③ 세종 대왕도 군사들의 씨름 경기를 보며 즐겼다고 해요.
- ④ 고구려의 옛 무덤에는 씨름하는 모습의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울까 말까

이중택

사과 껍질
벗기다가
손가락을
베었다.

피는
조금 나지만
겉은
더 난다.

울까
말까
피가 낀다.

울까
말까
울까
새빨간 핏방울!

그런데 그런데

울래도
집에는
아무도 없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요즈음 거리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자주 볼 수 있다. 버려진 쓰레기 때문에 거리가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기도 한다. 청소부 아저씨께서 부지런히 치우시기는 하지만, 다시 더러워지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까닭은 거리에 쓰레기통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쓰레기를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고 귀찮아서 그냥 아무 데나 버린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리 곳곳에 쓰레기통을 두어야 한다. 거리 곳곳에 쓰레기통이 있으면 사람들은 아무 데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다.

10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주장은 무엇인지 찾아 쓰세요.

()

11 이 글에서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 ① 거리 곳곳에 쓰레기통을 두어야 한다.
- ② 거리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자주 볼 수 있다.
- ③ 버려진 쓰레기 때문에 거리가 지저분하고 냄새가 난다.
- ④ 거리 곳곳에 쓰레기통이 있으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한 농부가 살았어요.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 멧돌을 발견했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척척 만들어 낼 수 있는 신기한 멧돌이었어요. 농부는 그 멧돌로 부자가 되었어요. 우연히 장터에 들렀다가 ㉠그 소문을 들은 도둑은 멧돌이 탐이 났어요.

그날 밤, 도둑은 농부네 집으로 살금살금 숨어 들어갔어요. 농부가 멧돌을 앞에 두고 “나와라! 밥!” 하고 외치면 밥이 술술 나오고, “멈춰라! 밥!” 하고 외치면 멈추었어요.

그 모습을 본 도둑은 농부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몰래 멧돌을 훔쳐 달아났어요. “하하하! 난 이제 부자다!”

도둑은 서둘러 바닷가로 달려갔어요. 배를 타고 먼 곳으로 가서 살 생각이었지요. 도둑은 멧돌을 배에 싣고 노를 저었어요.

어느새 바다 한가운데로 나오자, 도둑은 멧돌을 빨리 돌려 보고 싶었어요. 도둑은 귀한 소금을 만들어 내기로 했어요.

“나와라! 소금!”
도둑의 말이 끝나자마자 멧돌이 스르륵 돌기 시작하더니 하얀 소금이 쏟아져 나왔어요. 도둑은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며 어깨춤을 추었어요. 소금은 금세 배를 가득 채웠지요.

“이러다 배가 가라앉겠어. 이제 그만 멈춰야지.”
그런데 도둑은 멧돌을 멈추게 하는 말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러는 사이에 소금은 점점 더 높이 쌓였어요. 도둑은 도무지 멧돌을 멈추게 하는 말이 생각나지 않았고, 결국 배는 꼬르륵 가라앉았어요.

도둑이 훔친 멧돌은 지금도 바닷속에서 소금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바닷물이 지금처럼 짜다고 하네요.

12 ㉠은 어떤 소문을 말하나요? ()

- ① 도둑이 멧돌을 탐낸다는 소문
- ② 착한 농부가 살고 있다는 소문
- ③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한다는 소문
- ④ 농부가 신기한 멧돌을 주워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

13 (가)에서 공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두 글자의 낱말을 찾아 쓰세요.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얼마 전 도서관에서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를 읽었다. 책 표지에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 모습이 재미있어 보여서 읽게 되었다.

산골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밭에 팔을 심고 있을 때 호랑이가 나타나 할머니를 잡아먹으려고 했다. 할머니는 호랑이에게 팔 농사를 다 지어 동짓날 팔죽을 쑤어 먹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다. 팔죽을 먹고 싶었던 호랑이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돌아갔다. 동짓날이 되자 할머니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게 너무 무서웠다. 그때 할머니 앞에 알밤, 자라, 송곳, 멧돌이 차례로 와서 할머니에게 팔죽을 한 그릇씩 얻어먹고는 호랑이를 물리치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밤이 되어 산에서 내려와 팔죽을 먹으려고 부엌에 들어간 호랑이는 알밤에게 눈을 얻어맞고 자라에게 코를 물렸다. 그러고는 송곳에 찢린 후 멧돌에 맞은 뒤에 결국 도망갔다.

알밤, 자라, 송곳, 멧돌이 힘을 합쳐 호랑이를 물리치는 모습을 보고, 작고 약해도 힘을 합친다면 큰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16 글쓴이가 책을 읽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요? ()

- ① 책을 선물 받아서
- ② 제목이 재미있어서
- ③ 등장인물의 수가 많아서
- ④ 표지에 있는 그림이 재미있어서

17 글쓴이가 읽은 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

- ① 알밤, 자라, 송곳, 멧돌이 힘을 합쳐 호랑이를 물리쳤다.
- ② 동짓날 밤에 호랑이는 할머니를 잡아먹으려고 찾아왔다.
- ③ 알밤, 자라, 송곳, 멧돌이 할머니에게 팔죽을 얻어먹었다.
- ④ 호랑이는 밭에 팔을 심고 있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잡아먹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공룡은 지금으로부터 약 2억 3,000만 년 전 지구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무서운 도마뱀’이라는 뜻으로, 약 2억 년 동안이나 지구를 지배했던 무시무시한 동물입니다.

공룡은 생김새나 크기, 사는 곳, 먹이, 행동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뿔이 있는 공룡과 없는 공룡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엉덩이뼈의 모양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 사는 곳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고, 두 발로 서서 움직이는 공룡과 네 발로 서서 움직이는 공룡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식 공룡과 육식 공룡은 공룡을 먹이에 따라 구분한 것입니다. 초식 공룡은 식물을 좋아해서 나뭇잎이나 나무줄기, 열매 등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대부분 몸집이 크고, 네 발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육식 공룡은 고기를 좋아해서 다른 공룡이나 동물들을 잡아먹으며 살았습니다. 두 발로 걸었기 때문에 앞발이 자유로워 사냥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공룡이 살던 시기의 지구는 일 년 내내 초여름처럼 따뜻해서 숲이 울창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초식 공룡의 몸집이 점점 커졌습니다. 몸길이가 약 25m, 몸무게가 약 60톤이나 되는 큰 공룡도 있었습니다. 초식 공룡이 늘어나자 초식 공룡을 먹는 육식 공룡의 수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발견된 화석을 보면, 공룡은 약 1,000종이나 됩니다.

지금은 공룡이 모두 사라져서 볼 수 없지만, 여전히 많은 과학자들이 공룡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공룡이 앞으로 계속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 화석: 농사일이 바쁘지 않아서 시간적 여유가 많은 때.

18 이 글의 중심 글감은 무엇인가요? ()

- ① 지구 ② 공룡 ③ 날씨 ④ 화석

19 초식 공룡의 몸집이 점점 커진 까닭은 무엇인가요? ()

- ① 육식 공룡과 싸워야 했기 때문에
 ② 다른 공룡보다 빨리 자랐기 때문에
 ③ 먹을 것이 풍부해서 많이 먹었기 때문에
 ④ 날씨가 따뜻해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20 이 글을 읽고 다음 내용이 맞으면 '예', 틀리면 '아니요'에 V표 하세요.

	예	아니요
(1) 초식 공룡은 식물을 먹는 공룡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육식 공룡은 네 발로 천천히 움직였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공룡은 약 2억 3,000만 년 동안 지구에서 살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